

제2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7.16~17 전남 함평 석두마을에서



도 시민들에게 어촌 어항 어장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그 두 번째가 지난 7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어촌체험지정마을이며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된 전남 함평 석두마을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시민 81명이 참가, 함평 석두마을에 머무르며 갯벌생태체험, 장어잡기체험, 해수욕,

해수찜, 수산물 시식, 생태공원관람 등 다양한 어촌 어항 바다 체험을 즐겼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함평군이 주최하는 '참돔장어잡기 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것과 또 모든 체험과 숙박, 식사 등을 석두 어촌 내에서 실시, 체제형 체험 행사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 첫째날 석두마을 내 민박에 여장을 푼 다음 돌머리 해수욕장 야외 생태실물 체험관에서 나주 대학 유경아 교수로부터 갯벌생물들에

대한 소개와 갯벌의 소중한 등에 대해 강의를 받았고 이후 갯벌 조개잡이 체험과 해수욕을 즐겼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함께 지역 특산 수산물인 세발낙지와 보리새우를 시식하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신청자에 한해 함평의 명물 해수찜 체험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함평 생태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전시회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석두마을 내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함평군이 개최하고 있는 '참돔장어잡기 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지역 특산물 구매시간을 가지고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의 관련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협회 사이트(www.fipa.or.kr)에 게재,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3차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삼척시 장호마을에서 국제PEN클럽 회원들과 함께 할 예정이며 제4차 행사는 오는 8월 6일에서 7일까지 전북 부안 모항에서 '갯벌 올림픽'과 연계하여 개최된다.

